

[사회]

‘손놓은 法治’... 불법 점거 농성 대응

‘포스코 사태’ 장기화 조짐

농성 6일째, 전남 동부건설노조도 파업 고작 ‘담화문’ 발표... 국가기간산업 마비

경북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항 포스코 분사 점거농성 사태가 18일 6일째를 맞았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 실패 등 대응 능력 부재로 사태가 오히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포스코 광양제철 하청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전남 동부건설노조’(위원장 윤갑인)도 광양제철 산업단지 전문건설회사를 상대로 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어 국가 기간산업의 마비와 법치주의 실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사태가 해결돼도 외국인 주주가 70%가 넘는 포스코의 소유구조로 볼 때 외국인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공권력 ‘실종’=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포스코 분사 건물에 대한 강제진압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이 강력히 저항하면서 경찰 7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 진압을 뒤로 미룬 채 노조원들의 해산을 종용하는 구내방상으로 노조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불법 점거 사태에 끌려가고 있으며, 진압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사태발생 6일 만인 이날 관계 장관 합동으로 조속한 농성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뒤늦은 대응에 정부가 기간산업에 대한 불법 점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포스코 측은 건설노조의 분사 점거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분사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및 에어컨가동을 중지하기로 하는 등 처음으로 강경입장을 보였다.

◇피해액 농성이-국가 신인도 추락=포스코는 연휴가 끝난 18일부터 제

수시 1학기 경쟁률 20~30대 1

서울 주요대 원서 마감...의·약학과 가장 높아

광주·전남은 22일까지 접수

18일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원서접수 마감 결과 대부분 20~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의예과·약학과 등의 의·약학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2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는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경우 마감일을 4일 앞두고 0.77~2.65대 1의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연세대는 501명 모집에 7천320명이 지원해 14.61대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울캠퍼스의 경우 264명 모집에 5천195명이 지원해 19.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5명을 뽑는 의예과에 273명이 몰려 54.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고려대는 428명 모집에 1만6천699명이 지원해 39.0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안암캠퍼스의 경우 295명 모집에 1만5천577명이 지원해 52.8대 1을 나타냈다. 안암캠퍼스 의과대학이 2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양대도 464명 모집에 1만312명이 지원해 2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서울캠퍼스 의예과로 6명 모집에 515명이 지원, 8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화여대도 모집인원 319명에 6천5명이 몰려 1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약학과가 9명 모집에 530명이 지원해 5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광주대가 298명 모집에 376명이 지원해 1.26대 1, 광주여대가 108명 모집에 285명이 지원해 2.64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 중이다.

목포대는 193명 모집에 512명이 지원해 2.65대 1, 순천대가 276명 모집에 598명이 지원해 2.17대 1, 조선대가 801명 모집에 1천336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동신대는 351명 모집에 270명이 지원해 0.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또... 비야? 7월 19일 (음 6월 24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23~27℃
목포	흐리고 비	24~27℃
여수	흐리고 비	22~25℃
순천	흐리고 비	23~27℃
해남	흐리고 비	23~28℃
영암	흐리고 비	23~28℃
진남ون	흐리고 비	23~28℃
진천	흐리고 비	23~26℃
진주	흐리고 비	24~28℃
대구	흐리고 비	23~27℃
대전	흐리고 비	24~28℃
충주	흐리고 비	23~27℃
청주	흐리고 비	22~27℃
영광	흐리고 비	22~27℃
영동	흐리고 비	23~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북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8:26 썰물 < 01:29
여수 밀물 < 03:04 썰물 < 09:40

▲해돋이 05:32 ▲해질 19:45 ▲달돋이 00:12 ▲달질 14:27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7	22/28	22/28	23/27	23/29	23/31

극초단 X-선 레이저 발전 광주과학기술원 국내 첫 성공

나노 관찰 분야 등 큰 기여

광주과학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해 X-선 레이저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소장 이종민)는 독일 막스 본 연구소(Max Born Institute)와 공동실험을 통해 국내 최초로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X-선 레이저 발전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극초단 고휘력 레이저를 이용한 X-선 레이저 발생기술은 미국과 유럽 등 대형 레이저 시설을 보유한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연구 분야다. 특히 가속기 등을 이용한 기존 발생장치에 비해 장치규모가 작고 비용

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에서 X-선 레이저 광원이용의 저변 확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높은 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표면분석과 3차원 X-선 영상기술 등에 적용이 가능해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나노 구조 관찰 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기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민 소장은 “이번 X-선 레이저 발전 성공으로 극초단 광자빔을 이용한 입자빔 및 X-선 발생 연구의 체계적 연구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어! 흑산도 면적 121만평 더 넓네

지리정보시스템 확인

신안군 흑산도의 면적이 알려진 것보다 400만㎡(121만평)나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위성영상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흑산도 정 위치 찾기를 실시한 결과 면적이 2천370만㎡로 전에 알려진 1천970만㎡보다 400만㎡가 넓고 목포에서의 거리도 알려진 95km보다 가까운 86.7km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정확한 위치와 면적 확인은 전남도가 구축한 위성영상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거리 측정시스템(맵 컨트롤러) 덕분이다.

전남도는 현재 육지에서 삼까지 거리를 현지 측량없이도 정확히 산정해 낼 수 있는 거리측정시스템을 개발해 웹서비스를 위한 보안성 검토를 벌이고 있다.

도는 8월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행정기관 서비스를 실시한 뒤 보안성이 확인될 경우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과학문화재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물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정부 산하 기관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책자를 발간, 빈축을 사고 있다.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나도선)은 ‘월간 과학문화’ 7월호(통권 107호)의 4.5쪽 ‘과학문화 메시지’ 코너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과학문화 4쪽에는 나 이사장의 ‘2006 생활과학교실 워크숍’ 환영사가, 5쪽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격려사 일부가 실렸고 배경 그림으로 일본어판 지도가 실린 것.

과학문화재단 관계자는 “7월호부터 디자인을 운영업체에 맡겨 제작하는 바람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민병갑 前전남대병원장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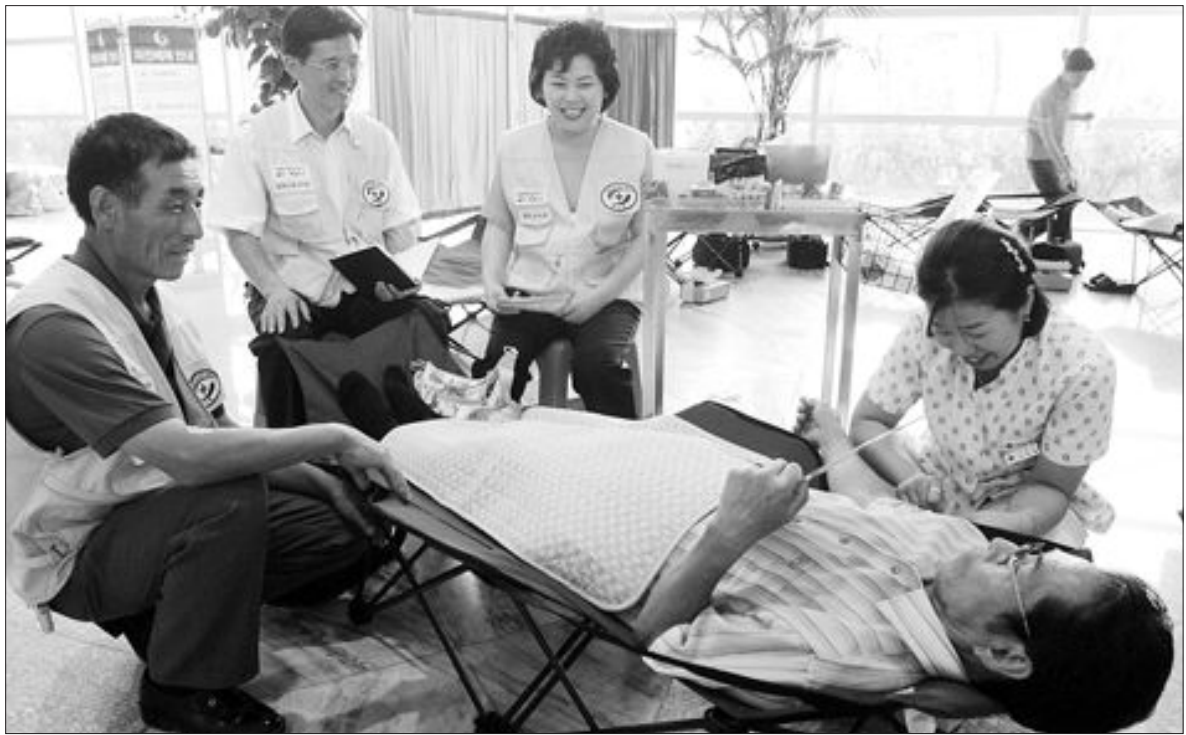
민병갑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가 18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56년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고인은 1967년 전남대 의대 비뇨기과학교실을 창설해 이후 20년간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와 비뇨기과 과장을 지냈다. 제21대 전남대병원장도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유족은 부인 박임순(74)씨와 형기

(48·사업가), 동기(46·사업가), 은주(44·인천민안과 원장), 승기(42·가천의대 외과교수)씨 등 3남1녀, 사위 장영진(45·인천장외과 원장)씨.

빈소는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0일 오전 10시, 장지는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선산. 연락처 (062)220-6982 /서민정기자 viola@



광주시청 공무원 헌혈

광주시청 직원 90명은 여름철 부족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18일 시청 시니홀에서 ‘하절기 공직자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동제약주식회사

버미플루 1알로 “환히 웃는 우리가족”

1회 1정 먹는 구충제 - 버미플루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번에 없애줍니다.

복통, 항문주위의 가려움,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인체의 장내에서 피를 빼앗아 가며, 식욕부진, 위통, 설사, 빈혈의 원인입니다. 1회 1정으로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구충제 - 버미플루이제부터 기생충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은 버미플루로 지켜주세요.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버미플루 정